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놓고 맡긴다는 것은 내가 쏙 빠지는 것

☞ 15면에서 계속

그렇다고 나 편리한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도재를 지내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먼저 천도재의 참 뜻을 아셔야할테고 스님네들이 왜 천도재를 지내라고 하는지도 잘 참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통신이 되어서 위로 묵은 빚을 갚을 게 아닙니까?

편입시험 치는데 불안합니다

문 스님 말씀 잘 받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9일 교육대학에 편입학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논술과 면접시험을 봅니다. 지난번 대학원 진학 시험 때와는 달리 여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기간도 짧아서 처음에는 불안하였지만, 밖으로 이루어지는 준비보다 내면의 마음 준비에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서를 내러 가는데 부산교육대학에 편입학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주인공 대학"에 시험을 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논술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시험이 밖으로 몇자 적는 시험이 아니라 제 주인공을 만나는 또다른 시험을 치는 준비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면접도 그 교수님들께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주인공 자리에서 제 주인공 자리를 면접본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과의 대화에서도 "한집안 식구끼리 보는 것이니 불안해 하지 말라"는 마음과 "주인공이 헛돈 들이지는 않는다"는 강한 믿음이 들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주인공과의 대화는 늘 이런식의 자문자답식입니다.)

오늘 원서를 넣고 스님과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탈감 대신 "내자리 주인공이 아는데 왜 남의 자리 주인공에 말해"하는 자신의 마음자리에 대한 강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지를 올리는 것은 제 자신의 주인공과 스님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마음과 뜻을 전하는 형식도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님, 저는 이번 시험이 또다른 연비와 같다는 마음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제 팔에 연비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가 제 마음에 시험치고 합격 도장을 쾅 찍는 과정 말입니다.

스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공부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

답 마음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 반갑고 고맙습니다.

개중에는 이 공부를 한다면서 여전히 '나다', '내로다', '내가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놓고 맡기는 공부가 아니지요. 놓고 맡기는 공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는 공부요 내가 빠지는 공부입니다.

처음에는 내 주인공 네 주인공 하다가도 공부가 익어가면 내 주인공과 네 주인공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주인공이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굳이 주인공을 찾지 않아도 여여하게, 뚜벅뚜벅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기 위해 정진하는 이유

문 주인공 공부를 알게 해주신 스님께 "고맙습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울산지원에 다니고 있구요, 경주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학교에서 선배와 공부에 대해 이야기 하던중 선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스님께 여쭙니다. "공룡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듯이 우리 인간도 어차피 사라질 것인데 왜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지요. 무어라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마음 속에선 무언가 해줄 말이 돌기는 하는데 확연히 알 수가 없어서 여쭙니다. 메일을 받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대불교신문에서 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답 아이 참, 여태 그 말 대답을 모르셨습니까?

찰나찰나 바뀌며 돌아가니 본래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부처님께서 누누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나'라고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모두들 나니 너니 하면서 따로 따로 봅니다. 그래서 각자 각자가 있고 동·식물이 있고 무정물이 있고 그럽니다. 그게 유의법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말 들어 보셨겠지요. 이 죽는 게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옷을 벗고 옷을 갈아 입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유의 세계 무의 세계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면 죽어도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대로 다시 몸을 되받고 또 되받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억겁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돈다 이거지요. 그러니 몸뚱이가 흩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지요. 그 몸 그대로 쓰고 나오지야 않겠지만 때로는 진화해서 나고 때로는 좌천해서 납니다. 그러니 어찌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아주 사라졌다고 하겠습니까? 또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지구라는 이 별만이 이 세상이고 다른 별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나'란 본래없다 하신 건 깨달은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니 모두들 공부를 해서 이 쳇바퀴로부터 벗어나야 하겠지요.

> 공부 익어 너와 나 둘 아님을 알게 되면
> 주인공이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 그냥 뚜벅뚜벅 걸을 수 있게 돼요

그림 · 최주현

찰나찰나 바뀌니 본래 나라 할것도 없어
남의생명 내 생명 처럼 여기는게 불살생

실험용 쥐 살생 가슴 아파요

문 큰스님,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뵙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한마음선원에 나가십니다. 저도 나갔었는데 학교 생활과 부딪치다보니 선원에 나가는 것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원동물학과이다 보니 실험으로 쥐를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아신 어머니께서 너무 싫어하십니다. 저도 산 것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교수님께서는 실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것이니 너무 개의치 말라고 하시는데, 또 너무 증식하다 보면 저희들로서는 초과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쥐의 증식이 너무 무섭고 또 너무 많다는 이유 하나로 죽이는 것도 싫습니다.

죽일 때 어머님의 말씀대로 "그래. 너희와 나는 둘이 아닌 하나로 너희가 죽음으로써 더 좋은 세상에 더 나은 위치로 태어나라"고 속으로 말하고 죽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앞으로도 많은 생명을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저보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안하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 공부를 아는 제가 생명을 죽여야 하는 게 죽임을 받는 그들에게도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을 좋은 세상으로 태어나게 하고 싶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제가 하는 입장에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답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살생을 전혀 안하고 살 수는 없지요. 먹고 먹히는 자연의 법칙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생을 하지말라 하시는 말씀은 '하지말라'가 아니라 생명을, 남의 생명을 내 생명 같이 소중히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따지고 보면 다만 생명을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누가 그걸 살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그 또한 살자고 태어난 생명이니 방편상 죽이게 되더라도 천도를 하면서, 너와 나가 둘이 아님을 되새기면서 하면 그건 죽이는 게 아니라 건지는 게 됩니다. 그렇다고 말로만 그런다면 안되지요. 풀 벌레 하나라도 생명은 다 같이 소중한 것이니 진정으로 그 생명을 건지면서 하도록 하세요. 누가 해도 할 일인데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기보다 내가 하는 게 그 생명을 바치는 대상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동료 극락왕생 했으면…

문 저는 서울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법원에 근무하다가 작년에 간암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던 한 판사가 올해 2월 7일 새벽 1시 혼수상태에서 세상을 달리하였습니다. 저와는 몇 달간 한 층에서 근무하며 오가다가 인사만 나누었을 뿐이지만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그것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달리하는 것을 보고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작년에 간암수술을 받고 친정에서 요양 중일 때 큰스님의 법문집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왠지 간절하였지만 당시 고인이 천주교 신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불찰로 교를 달리하는데 괜히 언짢게 생각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인이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것 뿐일텐데, 평소 공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탓인지 머리 속에 생각만 맴돌 뿐 마음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내는 것이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모친의 인도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능인선원에도 몇 번 나가고, 책도 열심히 보고, 특히 〈천수경〉을 녹음한 테이프를 헤질 정도로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주위 정리도 스스로 하여 아직 병가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굳이 사직을 원하여 세상을 달리하기 바로 하루 전인 2월 6일자로 사직이 수락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타계하기 얼마 전부터는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생전에 열심히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명할 경우 고인의 마음 또한 혼미한 상태에 빠져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답 질문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공부 얘기군요.

그렇게 지극하게 한마음 냈으니 고인인들 안 통했을리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까닭도 바로 몸 떨어지고 나면 입 떨어지고 생각도 떨어져 더는 이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그분이 댁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떠난 것 같군요. 그러니 열심히 하세요. 댁에서 열심히 하고 한마음 기울이면 고인에게도 통신이 될 겁니다. 법계는 한 통속아니까요.

한마음공부 어떻게 하는지요

문 저는 지난해 아저씨 목재소와 제가 하는 주유소 사업 실패로 부도를 면치 못했습니다. 엄청난 시련으로 삼남매 모두 온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기 전 절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주에 있는 어느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도중 어느 거사님이 가지고 계신 〈한마음요전〉 대행큰스님의 수행하신 책을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여러번 봉독을 하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요즈음 가까운 광명시에 거처를 옮기고 매일 기도하면서 생활합니다. 〈금강경〉도 봉독하고 〈관세음보문품〉도 봉독하고 〈반야심경〉 사경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합니다.

> 몸뚱이 흩어졌다고
> 끝난게 아니지요
> 때로는 진화해서
> 때로는 좌천해서
> 몸 되받고 되받으니
> 어찌 사라진 겁니까

큰스님 좋은 법문 너무 소중하여 여러번 봉독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탓인지 큰스님은 일체를 한마음 주인공에 믿고 맡겨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마음 주인공에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한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주인공에게 믿고 맡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십시오.

답 앞에서도 어느 분 말씀에 대답을 해드렸는데 또 되풀이 해야 하겠군요. 나야 같은 말을 백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알아듣는 분이 한분이라도 계신다면 고마운 일이지요.

놓고 맡기는 데 어떻게 맡기는 것이냐고 하시는 데 거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입니다. 무조건 그냥 매사를 '내가 한다' 생각마시고 일체는 주인공이 하는 거다 하고 굳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빠지는 겁니다. 내가 빠지면 그게 바로 놓은 것이고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다만 관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거울에 비추 듯이 그렇게요. 그렇다고 건성이 아닙니다. 말로만 내가 빠졌다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 나는 빠졌다. 그러니 주인공이 있다면 나와봐라' 할 때에 관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이지요. 무조건.

협찬 한마음

가파른 언덕을 넘느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737-0697)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로 연락 바랍니다.